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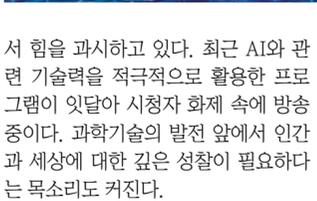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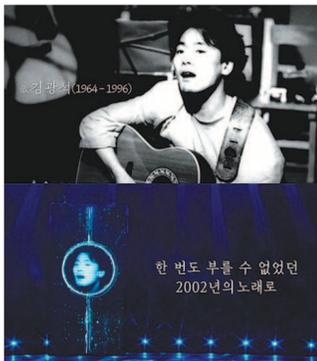
AI가 부른 노래에 “김광석이 돌아왔다” 감탄

故 김광석·프레디 머큐리 등 세상 떠난 가수 목소리 부활 가수 옥주현과 가창력 대결도 AI골퍼 엘드릭은 박세리 꺾어 놀라운 AI 기술...시청률 5%대

#2016년 3월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바둑판 앞에 앉은 이세돌 9단이 돌을 던졌다. 장고 끝, 패배의 선택이었다.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펼친 5번기 첫 대결이었다. 인간은 'AI(인공지능)'와 벌인 대결에서 1승 4패의 쓰라림을 삼켰다. 세상은 충격의 탄성을 내질렀다.

#2021년 1월30일 밤. 박세리가 나섰다. A 골퍼 엘드릭과 대결했다. 박세리는 LPGA 통산 25회 우승을 자랑하며 '골프 여제'라 불려왔다. 하지만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의 파워와 2016년 미국 PGA 피닉스 오픈(16번 홀) 홀인원 등 정확함을 과시하는 엘드릭에게는 역부족이었을까. AI는 또 한 번 인간과 대결에서 승리했다.

이세돌의 패배가 안겨준 충격 속에 '딥러닝' '알고리즘' 등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왔던 AI가 어느새 인방극장에



●인간만의 직관? AI가 넘본다

SBS가 1월29일과 30일 밤 방송한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이 최고 5.1% 시청률(닐슨코리아)을 기록했다. 박세리와 엘드릭 뿐 아니라 가수 옥주현과 AI의 가창 대결을 비롯해 김광석과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를 되살려내 시선을 끌었다. 5부작인 프로그램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세운 SBS 5부작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방송인 황광희와 김이나 작사가(오른쪽)가 김광석의 목소리를 AI가 재현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제공 | SBS

은 향후 인간과 AI의 프로파일링·주식투자 대결 등을 예고했다. 엠넷도 지난해 말 김광석을 비롯해 김현식, 신해철, 그룹 거북이의 터틀맨 등 이미 세상을 떠난 가수들의 무대를 다시 꾸몄다. '에이아이(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으로, 고인들의 목소리는 물론 바이브레이션 등 미세한 기량까지 재현해 시청자 탄성을 자아냈다. 고인들의 음성 등 생전 자료를 합성하고 이를 실재와 최대한 유사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반복 학습한 AI의 힘이다. 인간만의 직관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예술 분야에까지 AI의 기술력이 스며든 셈이다.

●“다시,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는 음원과 음반, 과거 영상으로만 듣고 볼 수 있었던 이들의 노래와 모습이 AI 기술력을 통해 실제 무대에서 듣고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하며 많은 시청자가 탄복했다.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의 시청자가 프로그램 게시판에 "정말 김광석 님이 돌아오신 것만 같고 대단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먼데이 키즈 김민수 님 목소리도 부탁한다"는 글을 남기는 등 호평을 냈다.

또 다른 시청자는 "2016년 이세돌이 알파고에 무너진 것만큼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또 설렌다"는 시청 소감을 남겼다. 진행자 전현무는 "엘드릭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자신을 복제한 AI를 보며 복기하고 슬럼프를 극복하려는 교육용이다"며 "인간과 대결'에만 초점을 맞춰 보지 말아줄 것을 권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인방극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제자진도 의식한 셈이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경희대 교수는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BTS, 美 잡지 선정 '역대 최고의 팝 밴드 10'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 퀸과 함께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팝 밴드 10'에 올랐다. 에스콰이어는 1일(한국시간) "BTS는 보이그룹, 팬덤, 대중음악의 개념 자체를 빠르게 재정의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탄소년단이 자선 경매에 내놓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의 의상이 미국 줄리아 옥션에서 16만2500달러(약 1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미국 빌보드는 "예상 가격보다 8배 높은 금액"이라며 "낙찰자는 일본인 수집가 유사쿠 메사와, 유튜브 '히카진'이라고 전했다.

'펜타곤' 후이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그룹 펜타곤의 멤버 후이(이희택·28)이 18일 훈련소에 입소한다. 1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후이는 이날 입소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후이는 지난해 12월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발생한 음악방송에 출연한 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입대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치 연상 마네킹 논란 관련 사과

그룹 여자친구가 최근 불거진 '나치 연상 마네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쏘스뮤직은 1일 "여자친구의 컴백쇼 VCR 비하인드 영상 및 멤버 소원이 업로드한 사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앞서 소원은 군복을 입힌 마네킹을 꺼내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후 해당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마네킹이 입은 의상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군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은 "영상 촬영 당일 현장 체크 과정에서 해당 마네킹의 복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며 "역사적 사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 또 역사 왜곡?

tvN 예능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가 또 다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박흥식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1일 SNS를 통해 1월30일 방영한 '페스트' 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세 유럽 전공자인 박 교수는 "자문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후사병을 극복하며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르네상스가 시작된 뒤 후사병이 발생했다"는 등 오류를 주장했다. 이에 제작진은 "관련 분야 학자들의 자문과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실민석 역사 강사의 '클레오파트라' 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인성·차태현의 '어쩌다 사장' 예고편 공개

배우 조인성과 차태현이 뭉친 tvN 새 예능프로그램 '어쩌다 사장'이 1일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어쩌다 사장'은 한적한 시골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 영상에서 차태현은 "친한 동생 중 예능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며 조인성을 추천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조인성은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방송할 예정이다.

음원 강자 아이유, 전방위 영역 확장



'아이유의 힘'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곡 '셀러브리티'로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한 데 이어 광고, 영화계에서도 스타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사진제공 | EDAM엔터테인먼트

'셀러브리티' 음원 차트 정상 새 영화 '브로커' 출연도 확정 광고계서도 뜨거운 러브콜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가 전방위적 활동으로 '홍행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내놓은 신곡으로 차트 정상에 오른 뒤 톱스타급 배우들은 물론 세계적인 명성의 감독과 호흡한다. 광고계 러브콜로 자신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셀러브리티'(Celebrity)로 1일 현재 멜론, 지니 뮤직,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4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정규 5집 발표에 앞서 별다른 활동 없이 수록곡 중 한 곡을 먼저 공개한 것인데도 '음원 최강자'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음원 판매량을 기록한 '블루밍'에 이어 '셀러브리티'까지 1년여 동안 3연속 히트로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스크린으로도 영역을 넓힌다.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브로커'에 출연한다. 아이유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기를 두

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송강호·강동원·배두나 등과 호흡을 맞춘다. 상반기 촬영을 시작한다. 앞서 '극한직업'을 만든 이병헌 감독의 새 영화 '드림'의 주연으로 나서 지난해 8월 말 촬영을 마쳤다.

대중적 인기와 긍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광고계 반응도 뜨겁다. 최근 유통, 정보통신, 제약, 아웃도어 등 관련 브랜드들과 광고모델 신규 및 재계약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실시한 소비자 행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광고모델'에서 1위를 차지한 힘이기도 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큰언니 박원숙, 황혼에 찾은 '예능의 맛'

K2TV '같이 삽시다' 시즌3 재개 시즌1, 2도 10%대 높은 시청률 헤은이·김영란에 김청 새로 합류

연기자 박원숙(72)이 '늦깎이 예능인의 진가'를 과시하고 있다.

1일 새롭게 방송을 시작한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을 통해 연기자 김영란(65)·가수 헤은이(65)·김청(59)과 "대본 없이 서로 지지고 볶는 일상"을 고스란히 공개하기 시작했다. '같이 삽시다'는 2017년 시즌1과 지난해 시즌2가 각각 10%(이하 닐슨코리아)와 5%대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시청자 공감을 형성했다. 1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박원숙은 "골곡진 삶을 살면서 저마다 아픔을 겪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시청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준 것 같다"면서 "아름이 없으면 이런 '사골 육수 맛'을 어떻게 내겠냐?"고 웃었다.

노년으로 접어든 여성 연예인들의 따뜻한 유대감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여성 연예인으로만 출연진을 구성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더욱 도드라진다. 박원숙은 "중



연기자 박원숙, 김영란, 김청, 가수 헤은이(왼쪽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가 1일부터 방송한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서 친한 사골 육수와 같은 일상을 공개한다. 사진제공 | KBS

년 여성 연예인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심점 점 역시 '말년니' 박원숙이다. 따뜻함과 카리스마를 오가며 '동생'들을 보듬는다. 새롭게 합류한 김청은 "박원숙 언니와 함께 살고 싶었고, 겁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순수한 매력의 김영란, '허당' 헤은이, 야무진 '막내' 김청까지 모두 "방송할수록 제 모습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고, 시청자들도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잘나가는 '윤스테이' 윤여정·최우식의 힘

'미나리' '기생충' 해외서도 명성 외국인팬들 팬 자처·초상화 선물 첫 방 후 10% 넘는 시청률 행진

'윤스테이'의 대표이자 메인 쉐프 그리고 인턴사원의 활약이 눈부시다. 본업 무대로 쌓은 해외 인지도도 '윤스테이'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팬을 자처하는 외국인도 등장하며 인기를 실감케 한다. 배우 윤여정과 최우식이 주연 영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국내 안방극장으로 몰고 온 주역이다.

tvN 관찰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의 대표 윤여정과 인턴 최우식은 각각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어들였다. 윤여정은 미국영화 '미나리'로 최근 현지 비평가협회상 등 모두 20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아카데미상 수상 전망을 날고 있다. '기생충'이 지난해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하면서 주연 최우식도 할리우드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들의 글로벌 활약은 '윤스테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외국인 손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스테이 운영 과정을 예능프로그램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윤스테이'에서



윤여정

최우식

이들은 친근한 미소로 응대에 나서고 있다. 일부 고객은 윤여정과 최우식의 팬임을 자처한다.

두 사람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화답하고 있다. 채식주의자 고객을 위한 식단을 따로 만들어내고, 각각 미국 거주 경험과 캐나다 출신으로서 영어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윤스테이'는 1월8일 첫 방송 이후 매주 금요일 밤 10%(닐슨코리아)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윤여정은 지난달 말 미국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 촬영을 위해 캐나다로 날아갔다. 4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후보 선정 및 수상을 겨냥한 '미나리'의 '오스카 레이스'에 합류할지 관심을 모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